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지원사업 협약 체결 중소기업 품질인증 지원으로 원자력업계 동반 성장 도모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지원사업 협약식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주최한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지원사업 협약식』이 6월 9일 서울 외교센터 디모스트홀에서 주관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참여기업인 중소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등록 지원 참여업체 17개, KEPIC 인증 취득 지원 참여업체 10개, ASME 등 해외인증 취득 지원 참여업체 6개 등 총 33개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은 원자력 관련 중소기업의 국내·외 품질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지난 2월 한국수력원자력과 본 지원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공고를 통해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모집한 후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참여기업을 선정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향후 2차 사업 공고를 통해 원자력산업계 강소기업의 역량 강화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러시아 ATOMEXPO 2017 참가

‘한국원자력관’ 운영, 유럽형 한국 원전인 EU-APR 소개



유럽형 한국원전(EU-APR) 및 한국원자력 전 주기 홍보를 위해 운영한 ‘한국원자력관’

한국원자력산업회는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9회 International Forum ATOMEXPO에 유럽형 한국 원전인 EU-APR과 원전 전(全)주기를 아우르는 원자력 기술 관련 내용을 전시해 각국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전시회에서 한국원산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전KPS(주), 한국전력기술(주), 한전원자력연료(주), 두산중공업(주) 등 국내 5개 원자력 기업과 함께 ‘한국원자력관’을 구성하여 WNA, OECD-NEA 등 국제기구 관계자와 행사 개최국인 러시아를 비롯한 UAE, 터키, 프랑스 등 주요국 원자력 관계자들에게 한국 원자력산업의 우수 기술을 알린 것은 물론 중국 원자력 산업계와도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한국원자력관’에는 러시아국영원자력공사(ROSATOM)의 주요인사와 모하메드 알 하마디(Mohamed Al Hammadi) ENEC 사장을 비롯한 UAE의 주요인사, 터키, 이란, 베트남 등의 원자력분야 정책 결정자들이 대거 방문하여 한국 원자력산업에 많은 관심을 표현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 관계자는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 및 로사툼국제협력네트워크(RAIN : ROSATOM International Network)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한국과 러시아 원자력산업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